

고향 찾은 효자가 선물받아 심은 은행나무



지정번호 제주-13-3-1-8-5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제주

수령 150년

수고 14m

흉고둘레 4,3m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월계로 109-3

33° 23' 49.12" N

126° 15' 38.60" E

제주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보호수(제주-13-3-1-8-5) 은행나무는 마을의 집과 담벼락 사이에 자라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온난한 지역에 자라고 있어 육지 내륙의 것과 달리 잎이 셋노랑게 물들기 전에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즉 은행나무 특유의 아름다운 단풍이 아니라는 뜻이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150년으로 추정되며, 보호수 은행나무 중 나무나이가 적은 편에 속하지만 제주도에서 고목의 희귀성이 인정되는 나무이다. 나무높이는 14m, 가슴높이둘레(가장 큰 줄기)는 43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3m 정도이고, 부채처럼 반원형을 그리며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큰 줄기가 동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이 줄기에서 3개의 가지 줄기가 수직방향으로 하늘을 향하여 뻗어 있다. 줄기 동쪽 부분에는 종유석처럼 생긴 혹이 몇 개 달려있다. 줄기 밑동은 돌무더기에 약간 묻혀 있으며, 약간의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생육상태는 좋지 않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은행나무 식재와 관련이 있다.

명월진 수군만호(무관)를 지냈던 김기반은 유배인의 심부름으로 한양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들고 간 서신을 뜯어보지 말라는 명을 받고 출발하였다. 김기반은 내용이 궁금하였으나 명을 어기지 않고 한양까지 편지를 잘 전달하였다. 서신(편지)은 말미에 '만일 이 편지가 개봉되지 않은 채 무사히 이 판사 대감에게 전달되면 내가 보낸 사람에게 벼슬 한자리를 내려주라'는 청탁의 글이 있었다. 이 편지를 받은 이판사(이학수)는 김기반을 신뢰하여 강원도 군관으로 근무하도록 조치하였는데, 근무하던 중 제주도 고향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에 이판사는 효심이 가득한 김기반에게 은행나무 두 그루(암수 각각 한 그루씩)를 선물로 주었다. 김기반은 한 그루의 암나무를 집출 입구에 심고, 다른 한 그루의 수그루는 행방이 묘연하다. 또 다른 이야기는 140여 년 전에 조선시대 무관을 지냈던 김기반(1832년생)이 육지에서 씨를 받아와 심은 것이라고 전한다.

